

2주차

조선 초기 신분제도의 운영

김 성 우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기본 방향: 제민정책(齊民政策)

- 조선왕조의 국정 방향
- ‘국가적 평등사회’의 전제: 제민정책(齊民政策)

02. 국가운영의 골격: 양천제(良賤制)

- 전체 인민의 이분화(二分化)
- 조선 초기 사회의 개방성

03. 국가의 작동 방식

- 조선왕조를 작동하는 세 가지 중심축:
국역체제, 양천제, 제민정책
- 조선왕조의 운영:
부병제(府兵制)와 과전법(科田法)

04. 운영의 모순: 세습 권력자에 대한 예우 문제

- 조선 초기 국가 공인 지배 신분층: 사족(士族)
- 세습성의 강화와 사족의 양반화(兩班化)

05. 국역체제와 사회적 통념, 상호 간의 갈등

- 양천제와 고려 후기-조선 초기의 사회경제 상황
- 국역체제와 사회적 통념, 양자의 조정
- 조선 초기 신분제 논쟁
- 양천제의 한계: 천인층(賤人層)의 광범위한 존속

4차시

운영의 모순:

세습 권력자에 대한 예우 문제

학습목표

- 조선 초기 지배 신분층인 사족(士族)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사족의 양반화 과정을 살펴본다.

학습내용

- 조선 초기 국가 공인 지배 신분층: 사족(士族)
- 세습성의 강화와 사족의 양반화(兩班化)

조선 초기 국가 공인 지배 신분층: 사족(士族)

조선 초기: 개방형 사회

- 양인에 대한 사회적 진출, 성취 허용
- 혈통에 의한 지위가 세습되는 ‘신분’이 자리잡기 협소
- 그러나 신분이 들어설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음

전근대 중국: 세습 권력자에 대한 예우

“ 예는 서인에게 미치지 않고, 형벌은 대부에게 미치지 않는다
[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]. ”

《예기(禮記)》

전근대 중국: 세습 권력자에 대한 예우

- 대부로 표상되는 세습적 권력자가 처벌받을 경우,
속형(贖刑)으로 대체가 가능했음
 - 속형(贖刑): 돈, 곡물로 갚거나 노비로 대신 처벌을 받는 것

사족(士族)

- 고려 후기: 현관(顯官) 출신자, 3대(代)에 이르는 후손들
- 조선 초기: 사족에 대한 법률적 용어 → ‘대소원인(大小員人)’

사족(士族)

“ 대소원인에게는 체벌(體罰)할 수 없고,
속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. ”

《경국대전(經國大典)》

대소원인(大小員人) = 사족(士族)

- 국가가 권력자와 그의 후손들에게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집단이었음

사족의 불안정성

- 사족의 자제는 국역 부담에서 면제될 수 없음
- 아버지 후광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없음

사족의 불안정성

→ 사족의 제자들도 국역 의무를 수행해야 함

(예외): 생원, 진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, 문무 관원은 제외

세습성의 강화와 사족의 양반화(兩班化)

양반(兩班)

- 통념적인 용어
- ‘동·서반(東西班) 관직에 참여하는 관직자’를 지칭
- 관직자 = 양반

예: 천역 종사자를 ‘일수(日守)’라고 부름 → ‘일수 양반’

양반 범주 논쟁 1430년(세종 12년)

- 소과, 대과 등 과거를 통해 정직(正職)으로 진출한 양반들이
비정직으로 진출한 양반들을 차별하기 시작
 - 정직으로 진출한 양반들은 자신을 ‘사족’이라 부름
 - 비정직으로 진출한 양반들을 ‘상인(常人)’이라 부름

양반 범주 논쟁 1430년(세종 12년)

- 국왕 세종, 일부 고위 관료들의 입장
: “양반이라면 모두가 동일하다.”

양반 범주 논쟁 1430년(세종 12년)

- 양반은 ‘문·무반 관직에 진출한 관직자’를 의미함을 재확인
- 즉, 양반은 개인의 능력에 의한 ‘관직자 계층’을 의미함

양반과 사족

- 양반: 관직자 전체를 의미하는 ‘계층적 용어’
- 사족: ‘신분적’ 특권이 강함,

양반보다 범주가 좁고 배타적임

대소원인 범주의 변화

15세기 전반 (세종 대)

- 정직과 잡직(雜職)을 모두 포함하는 관직자 전체

대소원인 범주의 변화

15세기 전반 (세종 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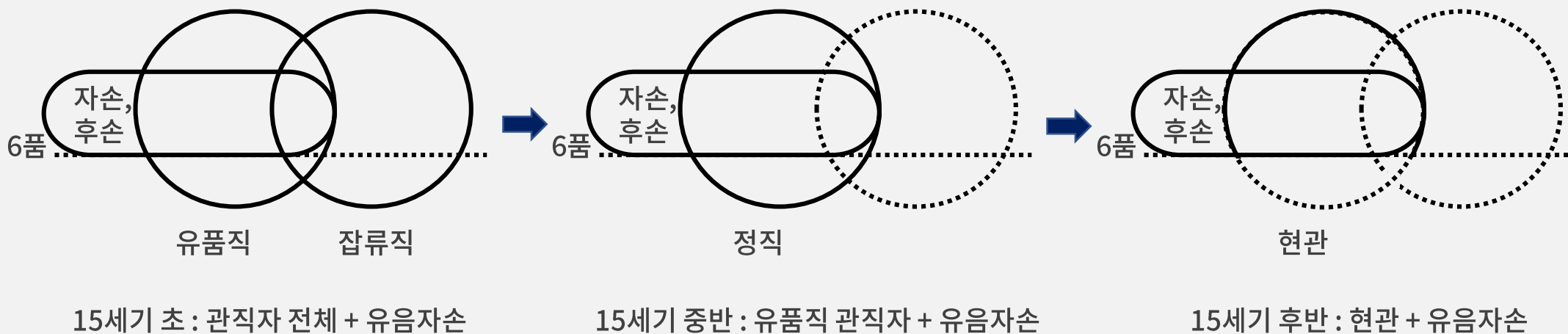
- 정직 관직자와 유음자손(有蔭子孫)으로 좁혀짐
- 잡직 관직자들이 탈락

대소원인 범주의 변화

15세기 전반 (세종 대)

- 전직 관직자의 신분적 특혜[유음(有蔭)] 범위가
현관[顯官; 6품 이상] 이상으로 제한됨
- 종6품-9품 관직자들이 탈락

대소원인(大小員人) 범주의 변화



마무리

- 조선 초기 개방형 지향 사회에서의
신분적 특권층 사족들의 예우와 처우
→ 개방 지향 사회가 점차 신분적 성향이 강해짐

다음 차시에서는

- 국역체제와 사회적 통념, 상호 간의 갈등

SOURCES

[출처01] 김성우, 『조선중기 국가와 사족』, 역사비평사, 2001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준희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